

『사상계』의 이민담론과 브라질 이민 시기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상계』의 해외담론은 주로 외국문학을 번역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어왔던 이전 시기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기행문·이주기록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1961년 10월호에서는 <韓國(한국)의 移民(이민)>이라는 표제로 이민과 관련한 글을 수록한 ‘이민 특집란’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기획 이민’ 현상을 의식한 결과이자 『사상계』 필진들의 이민에 대한 관심의 척도이기도 하다. 특집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우선 제3세계로의 관심과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 계열이나 식민지 출신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민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브라질 하면 移民을 연상할 만큼 브라질은 移民들의 맥카(Mecca)라고 하겠다.”¹⁾라는 문장에서도 간취되듯이, 넓은 토지에 반비례하는 노동력의 부족은 브라질을 이상적인 이민 국가로 상상하는 주요 명분이 되었다.

또한 이민 담론 속에서 일본의 사례가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선구적으로 남미 이민을 진행한 주변국 일본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브라질 이민을 추동하는 힘이 되었다. 1908년 일본 정부와 이민회사인 ‘구미흥업주식회사’가 브라질 정부와 협정을 맺으면서 국가 차원의 이민을 선행한 것이 시초로,²⁾ 브라질로 이민 간 일본인들은 ‘니푸 브리질레이루’ 혹은 ‘일계(브라질)인³⁾’로 불리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했다. 『사상계』에서는 일본의 장기적인 중남미 이민 계획의 성공에 대한 주 아르헨티나 대사로부터 전해진 글을 수록하기도 하며⁴⁾ ‘남미 드림’을 전파시켰다. 이렇듯 주변국의 보장된 성공사례는 『사상계』 필진을 비롯한 여러 지식인들로 하여금 남미(브라질)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의 움직임 속에서 마주한 브라질은 하나의 모범적인 실례로 제시된다. 유럽 열강과 유사하게 ‘문명국가’를 구축하고자 했던 제국주의 시기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은 넓은 토지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조건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충돌이 적은 안전한 이상 국가였다.⁵⁾ 다만 한국의 브라질 이민은 일본의 경제 논리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식민/식민 국가라는 차이 이외에도 전쟁과 분단이 한국의 이민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브라질 이민은 복잡다단한 맥락 속에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 경험은 1960년대 국가주도의 기획 이민보다 앞선 반공포로 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기록인 주영복의 「내가 겪은 조선전쟁」(1991) 등에서도 초창기 브라질 이민 경험이 회고되고 있는데, 그는 한국전쟁 이후 반공포로를 사면할 때 중립국 인도로 거처를 옮겼다가 제3세계인 브라질을 선택·이주하였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국적으로 이주한 장승호, 혹은 김수조처럼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 이민자들과 함께 브라질로 이주⁶⁾한 경우들도 존재

- 1) 정연권, 「中南美移民僑胞實態와 移民可能地域」, 『사상계』통권 99호, 1961.10.
- 2) 민원정, 「기획 이민의 빛과 그림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내 한국 및 일본 이민 비교」, 『이베로아메리카 연구』vol.36 no.2,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25, 181쪽.
- 3) 일계인은 크게 일계아메리카인과 일계브라질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일계브라질인의 정의는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민1세, 일본과 브라질의 이중국적자의 2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위의 글, 63쪽.
- 4) 조기성, 「日本の 移民政策과 現況」, 『사상계』통권 99호, 1961.10.
- 5) 민원정, 앞의 논문, 192쪽.
- 6) 최금좌, 「이야기 브라질 한국이민사: 전 보사부 차관 한국진과 초기 이민자 고향순을 중심으로」, 『포르투갈-브라질 연구』vol.5, no.2,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2008, 80쪽.

한다. 이렇듯 초창기 이민자들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브라질을 비롯한 제3세계 지역으로 이민하였고, 이후의 1960년대 이민자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백옥빈 수기가 연재된 1960년대 무렵의 기획 이민은 개발과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인 요인이 큰 작용을 했다. 이 시기에는 중남미로의 한인 이주가 가장 활발히 장려되는 한편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예컨대 이민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한인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정착지를 이탈하거나, 현지의 문화사절단이 싱가포르에서 3파로 분열하여 개별적인 행동을 취하는⁷⁾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브라질의 비자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⁸⁾ 하지만 기독교를 중심으로 꾸려진 한인 공동체나 아리랑 농장 등, 초기 정착의 바탕이 마련되어있던 덕분에 백옥빈을 비롯한 1960년대의 이민자들은 안정적으로 브라질 이민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이민주부 정체성과 공동체 속 사적(私的) 발화

브라질 이민 1세대였던 그녀는 이민 직전 『사상계』로부터 해외 특파원 자격을 부여받게 되면서 글을 기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⁹⁾, 그렇다면 『사상계』는 백옥빈의 남편이 전문직 이주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범한 여성’인 백옥빈씨에게 수기 연재를 부탁한 것일까?

(그림)첫 번째 이민통신에서는 「한 이민주부의 일기」라는 제목 옆에 “鄉愁에 젖은 移民船의 容苦를 덜어주는 「꼬마 三重奏閣」의 어머니는 甲板 위의 除夜의 고통소리를 들으며 「갖은 추억을 싣고 떠나는 一九六二年이여! 안녕!」이라고……”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다. 어머니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과 이민주부라는 표제는 유사하게 맞물리면서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전달한다. 이것은 바로 원편의 백옥빈의 사진과 그 아래 ‘<백옥빈 통신원>’이라는 구도를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간편한 ‘일기’로서 받아들이게 한다.

한편 브라질 이민 대상자는 1차 이민으로 브라질에 이미 가있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어야 했으며, 그 중에서도 스스로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었다.¹⁰⁾ 이는 1960년대 브라질 이민이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가 함께 이주하는 ‘가족 이민’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시한다. 사실 백옥빈은 경성 사범대를 졸업한 뒤 결혼 전까지 평양과 서울에서 교편을 잡았던 지식인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주부’라는 장치 속에서 재브라질 한인의 전형적인 표상으로 재등장했다.

그녀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하려 애썼다”고 말하며 이민 생활에서 희망·가정·종교의 힘이 컸다고 회고하는데, 「브라질 이민통신」에서는 가정과 신앙(천주교)생활에 대한 서사가

7) <“브라질로간「文化使節團」分裂해 個別行動 移民政策 再檢討해야” 吳運營委員長言及>, 《경향신문》, 발간일 1962.05.12.

8)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1963년 하반기 브라질 정부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강히 거부하고 일부 선발대가 제반회의를 위해 브라질로 떠나는 등 비자 심사에 까다로움을 겪었으며, 1964년 브라질 제5차 이민을 시작했다는 기사 등을 참조했을 때 이 시기는 남미 이민 정책이 정착화 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브라질에六名向發「비자」發給등協議〉, 《동아일보》, 발간일 1963.01.11., 〈「브라질」 2次移民 年内實現어려울듯〉, 《경향신문》, 발간일 1963.06.13., 〈“브라질 5次移民 갈곳못된다 危險하고 耕作不能…사람이 살수없어 페레라領事談 「비자」는韓國이줄라대서”〉, 《조선일보》, 발간일 1964.07.31. 참조.)

9) 이주영 기자,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브라질에 '제2 한국' 이룩할 수 있다 희망…결심의 동기”〉, 《인천일보》, 작성일 2023.06.28., 검색일 2025.11.20.

10) <生活力있는 27名은失格〉, 《조선일보》, 발간일 1963.09.14.

자주 등장¹¹⁾하고 있다. 하지만 수기에서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삶, 그리고 일반적인 주부로서의 삶보다는 지식인 공동체의 모습이 주요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위치한 공동체가 보편적인 농민 이민자들의 생태와는 구별되었음을 반증한다.

1세대 이민자인 포로 수기에서 발화되는 이민 경험은 주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여전히 “패전 포로이자 민족을 버린 반역자”라는 자책과 자학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조국을 등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하는 반공포로들의 죄의식 섞인 발화들은 단순히 ‘고국’에 대한 향수를 넘어 여전히 과거 그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했던 남한의 반공주의적 통치 문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드러낸다.¹²⁾ 그러나 자신이 평범한 어머니이자 주부임을 내세우며 시작한 백옥빈의 브라질 이민 수기에서는 포로 수기와는 또 다른 방식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백옥빈의 수기 속에서 기획 이민 1세대와 초창기 이민자들의 만남이 종종 발견된다는 점이다. 백옥빈이 한인들은 대부분 1차 이민자보다 앞서서 브라질에 도착한 반공포로 등 초창기 이민자였다. 이들은 이민의 시기는 달랐을지언정 공통된 한인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백옥빈의 수기는 이전의 전쟁 포로들의 수기와 구분되는 한편, 한인 공동체 속에서 그들과 마주하기도 했다. 특히 초창기 이민자들과의 일화를 얘기할 때 이름 앞에 ‘반공포로’라던가 ‘부회장’ 등의 명사를 덧붙이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백옥빈이 관계하는 한인들이 대부분 지식인 계층이었음을 보충한다.

자신의 아버지는 이사회 회장으로서는 이민 회관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기도 했으며, 미국에 체류하던 중 브라질에 들린 서울 고대학장 권오익 선생과 경제적 논의를 하는 등 백옥빈은 농민이라기보다는 정치가 혹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브라질 이민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밖에도 문하생의 피아노 발표회를 관람하고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등 이민자치고는 호화롭고 예술적인 일상이 그려진다. 이런 지점들에서 백옥빈이 이민 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시대적 맥락이 드러나는 한편, 농민 노동자가 아닌 지식인(남성)의 시각이 도출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브라질 이민 생활에 있어서 이민자들 간의 결혼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옥빈 일기에는 총 10번의 결혼사가 등장¹³⁾하는데 대부분 반공청년 남성과 1차 이민단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브라질 내부에서 한인 사회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이민 사회로의 편입을 위해서는 가족의 지위, 예컨대 이민 남성과의 결혼이 필수적이었음을 적시한다. 친밀한 브라질 한인 사회는 한편으로 새로운 이민자에게는 하나의 카르텔이었을지도 모른다. 한-브 간의 외교가 중단되었다가 1965년에 공식 계약이 ‘재개’되기까지 과도기적인 시기에 백옥빈 수기가 연재되었다는 점 역시 시사성을 지닌다. 백옥빈 수기는 결국 브라질 내부의 이민사회를 공고히 하고, 그녀의 말처럼 브라질 내의 ‘제2의 한국’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리라고 본다.

11) 이재림 기자, <[집단이민 60년] ④ <인터뷰> 브라질 이민사 필독서 남긴 '산증인' 백옥빈 할머니>, 《연합뉴스》, 작성일 2023.02.10., 검색일 2025.11.20.

12) 김혜인,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vol.48, 상허학회, 2016, 58쪽.

13) 김윤정, 「초기 브라질 이민자의 생생한 기록, 백옥빈 일기」, 『백옥빈 日記』, 한국이민사박물관, 2021, 18쪽 표 참조.